

##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요인

고 유 미                      이 정 윤\* 1)  
성신여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학교적응아동과 부적응아동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성격 특성과 학습동기, 사회적 지지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적응아동과 부적응아동을 구분해주는 요인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 인천과 경기도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어머니가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의 아동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학교생활적응과 성격특성, 학습동기, 사회적 지지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검증에서 학교에 적응을 잘 하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성격특성과 학습동기,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수준이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저학년 집단에서는 목표지향성과 성실성, 그리고 교사 지지와 가족지지가 학교생활적응의 약 71.2% 이상을 설명해주는 반면에, 고학년 집단에서는 학습동기의 하위 변인인 학업효능감과 목표지향성이 학교생활적응의 80.5%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분석 결과, 저학년에서는 목표지향성과 자존감지지, 교사지지가, 고학년에서는 학업효능감과 친구지지가 사례의 95% 이상을 정확히 분류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다문화가정, 학교생활적응, 성격특성, 학습동기, 사회적 지지

\* 본 논문은 이정윤의 지도로 이루어진 고유미(2009)의 석사학위 논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이정윤,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36-742) 서울 성북구 동선동 3가  
Tel: 010-9061-3833, 02-920-7603, E-mail: jungyoon@sungshin.ac.kr

현재 우리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 유학 생뿐만 아니라 국제결혼가정도 증가하여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실태조사(2008)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이\*2)891,341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외국인주민 중 결혼이민자는 144,385명으로 16.2%를 이루고 있어, 2002년 34,710명에 비하여 그 수가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수는 2006년 25,000명, 2007년 44,000명에서 2008년 58,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6세 이하가 57.1%를 차지하고 있고, 6-12세 이하의 아동이 32.2%를 차지한다(행정안전부, 2008). 이러한 연령분포로 볼 때 앞으로 학령기에 접어드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주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학교생활적응도가 낮게 나타났다(Chin & Yu, 2008).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2006)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자녀의 9.4%가 초등학교를 중퇴하였으며 17.5%가 중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 아동의 학업중단율인 1.1%에 비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의 환경 및 배경이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주동범, 1998)는 맥락에서 그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기 애착 대상인 어머니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학령기 이전의 아동은 대부분의 생활을 어머니와 함께 하고,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많은 것들을 습득한다. 이처럼 어머니가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국제결혼

의 대부분이 여성 이민자와 국내 남성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은 아동들이 겪는 이중 문화현상이나 2개 국어의 병용으로 인한 언어습득의 지체,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정체성 혼란 등 여러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발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문화일보, 2006).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학령기에 접어들 연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학교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활의 중심이 가정인 학령기 이전과는 달리, 학령기에는 학교에서의 생활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게 되며, 생활의 중심이 학교로 옮겨지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적응은 아동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아동의 학교적응 여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뿐만 아니라 이후 상급학교의 적응과 성인기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의 학교적응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이정윤, 이경아, 2004; Ladd, Kochenderger, & Coleman, 1996). 따라서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일반 아동들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들(강종훈, 2000; 광경화, 2000; 김선정, 2007; 문은식, 2002; 차유립, 2000; Baker, 2006; Haynes, 1990; Jung & Stinnett, 2005; Ladd et al. 1996; Lorion, Cowen, Kraus, & Milling, 1977; Zerrergren, 2003; Zhou, Peverly, Xin, Huang, & Wang, 2003 등)을 주요변인별로 요약해보면, 아동의 개인적 특성(자아개념, 자기존중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성격특성, 사회적 기술, 학습동기,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과 가족적 특성(부모애착, 부모-자녀 간의 사소통 유형, 부모의 양육태도 등), 사회적 특성

1) 외국인주민: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장기체류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및 그 자녀

(교사-학생간 성격 유형 일치도, 교사-학생 간 의사소통 유형, 단짝친구여부, 사회적 지지 등)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적 특성(지역사회 지원체계 존재 여부)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기여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외국인 부모의 출신국가나 가정 내 이중 언어 사용 등과 같이 다문화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학교생활이 학업과 또래관계, 선생님과 관계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가정 내의 다문화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적, 학업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일반 아동들의 학교적응 관련변인들을 고려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되는 요인을 성격적, 학업적, 사회적 차원에서 각각 한 가지씩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다문화가정의 경우 외국인인 어머니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문화적 차이, 낯선 사회에서의 적응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아동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대인관계의 폭이나 깊이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오성배, 2005). 그러나 개인의 성격특성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성격특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격특성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직접 검토한 연구는 없다. 일반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들에 의하면, 성격특성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경화(2002)와 김민정(2006), 이승화(2001)의 연구에서 아동의 성격특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또래관계나,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격특성은 스트레스 대처

양식이나 학업성취도, 대인관계성향, 유머감각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광경화, 2002; 김민정 2006; 조영란 2006),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래 및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동의 성격특성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들 간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학교생활의 경우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습적인 영역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Brophy(1988)는 학습동기를 학생으로 하여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학업적 활동을 모색하고, 그러한 학업적 활동으로부터 의도한 학업적 이점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성이라고 정의하였다(김옥분, 2001 재인용). 학습 성취가 중요해지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습 동기는 학습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옥분, 2001; 유효현, 2000; 이경자, 2006; 등). 그러나 학교생활에서 학습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해볼 때, 초등학교 시기가 중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 성취에 대한 중요성이 낮다하더라도, 학습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이 점차 초등학교 시기로부터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볼 때 초등학교 시기에도 학습 동기는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언어와 문화의 이질성으로 인해 학교수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일반 아동들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학업성취도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학업적인 측면, 즉 학습동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지지 또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김종기, 2004; 홍진주, 2003 등). Cobb(1976)는 사회적 지지를 개인이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의 신체적, 물질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개인이 보살핌과 사랑, 존경과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과 조직망 속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도록 이끄는 정보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정의한다(김경란, 2007 재인용).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학교 중도 탈락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부모와 교사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Bhattacharya, 2000).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홍진주(200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의 하위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편부모가정 자녀, 학교폭력 피해자, 새터민, 시설아동 등 다양한 대상들의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며(유전희, 하은혜, 2008; 이현지, 2008 등),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안은미, 2006; 이영주, 2008; 정현영, 2006).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일반 아동 뿐 아니라, 특수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동들의 학교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이들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가 아직까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또한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에 비하여,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다문화적 특성과 자기존중감, 사회적 지지와 같이 한정적 주제에 해당되는 연구(신혜정, 2006; 양순미, 2007; 이영주, 2008; 정현영, 2006)들로 제한된 실정이다. 특히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성격 특성이나 학습동기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

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서 양육되었다는 유사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따라 적응의 정도가 달리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떠한 요인들이 학교적응을 잘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아이들을 잘 구별해줄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영역으로 세 가지 차원 즉, 성격적, 학업적, 사회적 차원을 설정하고, 각각 성격특성과 학습동기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집단과 적응을 잘 못하는 집단을 구분해주는 요인들이 어떠한 것인지 관별분석을 통하여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힘으로써,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방 법

### 연구대상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 총 12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화급 담당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의 협조를 얻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102부가 수거되었으며, 이 가운데 누락된 문항이 없고, 어머니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설문지 87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어머니가 외국인인 자녀들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어머니가 아동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 분석에 사용된 총 87명 중 남자는 44명(50.6%), 여자는 43명(49.4%)을 차지하였으며, 저학년은 총 54명(62%), 고학년은 총 33명

(38%)을 차지했다. 또한 학교적응을 잘 하는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을 구분하기 위해 학교생활적응 설문지의 총점을 기준으로 상·하위 30%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학교적응집단에는 총 27명, 학교부적응집단에는 총 26명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 참가한 연구대상자 어머니의 출신국가는 중국이 44.8%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이 19.5%, 베트남이 16.1%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태국이 8%, 일본이 5.7%, 몽고와 인도네시아가 2.3%, 말레이시아가 1.1%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임정순(1993)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검사지' 등을 기초로 수정, 보완한 배숙진(1998)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 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 교칙 등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하위 영역은 8문항씩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32점부터 160점까지 점수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숙진(1998)의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3으로 나타났다.

#### 성격특성

5요인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McCrae와 Costa(1992)가 개발한 간편형 성격 검사를 안창규, 이경입(1995)이 번역하여 타당화한 60문항의 NEO-PI-R 검사 중 초등학생이라는 연령을 고려해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의 3요인만 추출하여 초등학생에 맞도록 수정한 김민정(200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조영란(2006)의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에 성격특성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친화성, 외향성, 성실성 순으로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

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개방성과 신경증 척도를 제외한 김민정(200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각 요인별로 7문항씩 총 21문항으로 구성된 Likert식 5점 척도이다. 김민정(2006)의 연구에서 도출된 Cronbach's  $\alpha$ 는 각 하위요인별로 외향성 .83, 성실성 .86, 친화성 .8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과 친화성 척도의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신뢰도의 확보를 위하여 두 척도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외향성에서 2문항, 친화성에서 3문항을 제외하여 외향성 5문항, 성실성 7문항, 친화성 4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외향성 .76, 성실성 .80, 친화성 .60으로 나타났다.

#### 학습동기

아동의 학습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은식(2002)이 Midgley 등(1998), 양명희(2000) 그리고 Kaplan과 Maehr(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번안하고 취합하여 제작한 척도를 이경자(2006)가 다시 수정·보완한 척도를 본 연구자가 초등학생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목표지향성, 성취가치, 학업적 효능감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각 하위영역별로 8문항씩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4점 척도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설문지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척도와 일치되게 5점 척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1문항을 제외하여 총 23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긍정적이며, 목표 지향적이고, 자신의 학업 능력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문은식(2002)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1, 이경자(2006)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alpha$ 는 .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6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지지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미현(1996)이 제작하여 표준화한 사회적 지지 척도와 이경주(1997)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홍진주(2003)의 척도 중 지지유형에 관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하위 영역은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의 지지원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자존감 지지, 물질적 지지를 말하는 지지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지지원은 각 8문항씩 24문항, 지지유형은 9문항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이다. 한미현(1996)의 연구에서 도출된 지지원에 대한 Cronbach's  $\alpha$ 는 .96이며, 홍진주(2003)의 연구에서 도출된 지지유형에 대한 Cronbach's  $\alpha$ 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5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먼저,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총 점수를 기준으로 상, 하위 30%를 학교적응집단(총 27명)과 부적응집단(총 26명)으로 구분하고 두 집단 간 성격 특성, 학습 동기,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생활적응 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독립변인들의 하위 척도를 예언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적응집단과 부적응집단을 잘 구분해주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적 중다회귀분석과 판별분석의 경우 저학년(총 54명)과 고학년(총 33명)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상관분석과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은 전체 집단(총 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t$ -test와 판별분석은 학교적응집단(총 27명)과 부적응집단(총 26명)으로 선정된 총 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결 과

###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성격특성, 학습동기,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적응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은 성격특성의 하위척도인 외향성( $r=.43, p<.01$ ), 성실성( $r=.60, p<.01$ ), 친화성( $r=.59, p<.01$ )과 중등도 수준의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의 하위척도인 목표지향성( $r=.79, p<.01$ ), 성취가치( $r=.75, p<.01$ ), 학업효능감( $r=.74, p<.01$ )과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가운데 지지원 중에서는 친구지지( $r=.63, p<.01$ )와 교사지지( $r=.64, p<.01$ )가 가족지지( $r=.38, p<.01$ )에 비해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유형 가운데는 자존감 지지( $r=.58, p<.01$ )와 물질적 지지( $r=.51, p<.01$ )가 정서적 지지( $r=.45, p<.01$ ) 또는 정보적 지지( $r=.33, p<.01$ )에 비해 학교생활적응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생활적응 수준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학교생활적응 수준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차이를 보기 위한  $t$ -test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학교적응집단과 학교부적응집단은 모든 변인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학교적응집단이 학교부적응집단보다 성격특성인 외향성 수준( $t_{40}=-4.57, p<.001$ )과 성실성 수준( $t_{57}=-6.96, p<.001$ ), 친화성 수준( $t_{57}=-7.18, p<.001$ )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동기의 하위요인인 목표지향성( $t_{41.8}=-9.66, p<.001$ ), 성취가치( $t_{30.4}=-8.37, p<.001$ ), 학업효능감( $t_{37.9}=-6.86, p<.001$ ) 또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인 친구지지( $t_{57}=-7.03, p<.001$ ), 가족지지( $t_{57}=-3.47, p<.01$ ), 교사지지( $t_{57}=-7.39, p<.001$ ), 정서적 지지( $t_{57}=-4.58, p<.001$ )와 정보적 지지( $t_{57}=-3.34, p<.01$ ), 자존감 지지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된 요인

( $t_{40}=-7.56, p<.001$ ), 물질적 지지( $t_{57}=-5.39, p<.001$ )  
도 학교적응집단이 부적응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인	학교 생활 적응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	목표 지향성	성취 가치	학업 효능감	친구 지지	가족 지지	교사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 지지	자존감 지지	물질적 지지
학교생활 적응	1.000													
외향성	.429**	1.000												
성실성	.599**	.683**	1.000											
친화성	.587**	.736**	.744**	1.000										
목표 지향성	.785**	.350**	.527**	.520**	1.000									
성취 가치	.752**	.350**	.479**	.476**	.800**	1.000								
학업 효능감	.736**	.385**	.525**	.458**	.781**	.841**	1.000							
친구 지지	.633**	.590**	.693**	.663**	.546**	.482**	.472**	1.000						
가족 지지	.381**	.560**	.661**	.635**	.379**	.434**	.385**	.613**	1.000					
교사 지지	.641**	.598**	.657**	.634**	.542**	.597**	.585**	.637**	.640**	1.000				
정서적 지지	.451**	.468**	.466**	.498**	.439**	.348**	.360**	.496**	.394**	.520**	1.000			
정보 지지	.328**	.261**	.491**	.396**	.265**	.185**	.226**	.519**	.386**	.303**	.356**	1.000		
자존감 지지	.577**	.522**	.717**	.642**	.572**	.475**	.450**	.711**	.511**	.535**	.555**	.402**	1.000	
물질적 지지	.507**	.368**	.552**	.491**	.491**	.402**	.438**	.639**	.516**	.510**	.552**	.399**	.568**	1.000

\*\*  $p < .01$



표 2. 학교생활적응 수준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검증

변인	학교부적응집단	학교적응집단	t
	M(SD)	M(SD)	
외향성	16.154 (4.662)	21.000 (2.801)	-4.57***
성실성	21.500 (4.835)	30.222 (4.282)	-6.96***
친화성	12.000 (2.366)	16.704 (2.399)	-7.18***
목표지향성	19.577 (6.133)	33.222 (3.856)	-9.66***
성취가치	22.654 (8.275)	36.963 (2.794)	-8.37***
학업효능감	17.539 (9.131)	31.407 (4.893)	-6.86***
친구 지지	20.346 (6.138)	32.741 (6.671)	-7.03***
가족 지지	29.808 (7.244)	36.222 (6.129)	-3.47**
교사 지지	24.231 (5.609)	34.482 (4.449)	-7.39***
정서적 지지	5.269 (2.290)	7.9259 (1.920)	-4.58***
정보적 지지	2.423 (1.447)	3.778 (1.502)	-3.34**
자존감 지지	8.231 (3.115)	13.556 (1.826)	-7.56***
물질적 지지	7.808 (3.250)	12.222 (2.694)	-5.39***

\*\*  $p < .01$  \*\*\*  $p < .001$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4에 제시되었다. 우선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 결과인 표 3를 보면 목표지향성, 교사지지, 친구지지, 성취가치, 가족지지가 학교생활적응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하위변인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전체변량의 74%( $F=46.031, p<.001$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은 목표지향성이 61.6%로 가장 큰 설명량을 보였고, 교사지지가 6.6%, 친구지지가 1.9%, 성취가치가 2%, 가족지지가 1.8% 순으로 추가적인 설명량을 나타냈다.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다문화가정 아동을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

어 실시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표 4참고)에 따르면, 저학년의 경우 목표지향성과 교사지지, 성실성, 가족지지가 학교생활적응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요인이었고, 이들 하위요인들은 71.2% ( $F=30.242, p<.001$ )의 설명량을 나타냈다. 목표지향성이 55.8%의 가장 높은 설명량을 나타냈고, 교사지지가 10.1%, 성실성과 가족지지가 각각 2.6%의 추가적 설명량을 보였다. 고학년의 경우 학습동기의 하위요인인 학업효능감과 목표지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와 목표지향성은 학교생활적응 전체변량의 80.5%( $F=62.005, p<.001$ )를 설명하였고, 그 중에서 학업효능감이 75.3%이고, 목표지향성이 5.2%를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기준변인	예언변인	Beta	R <sup>2</sup>	R <sup>2</sup> 변화량	F	총변화량
학교생활적응	목표지향성	.364	.616	.616	46.031***	50929.264
	교사지지	.227	.682	.066		
	친구지지	.274	.701	.019		
	성취가치	.276	.721	.020		
	가족지지	-.190	.740	.018		

\*\*\*  $p < .001$

표 4. 저-고학년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분류	예언변인	Beta	R <sup>2</sup>	R <sup>2</sup> 변화량	F
저학년	목표지향성	.441	.558	.558	30.242***
	교사지지	.341	.659	.101	
	성실성	.327	.686	.026	
	가족지지	-.213	.712	.026	
고학년	학업효능감	.544	.753	.753	62.005***
	목표지향성	.396	.805	.052	

\*\*\*  $p < .001$

**학교적응집단 및 부적응 집단을 판별해주는 요인**

학교적응집단과 학교부적응집단을 분류해주는 요인을 찾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5 참고), 목표지향성과 자존감지지, 교사지지, 그리고 성취가치가 Wilks' Lambda 값 .204( $p < .001$ )로 사례의 98.1%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다. 저학년과

고학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결과(표 6 참고), 저학년에서는 목표지향성과 자존감지지, 교사지지가, 고학년에서는 학업효능감과 친구지지가 Wilks' Lambda 값 각각 .209( $p < .001$ )와 .196( $p < .001$ )으로 저학년의 100%, 고학년의 95%를 정확히 분류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교적응-부적응집단을 구분해주는 변인

변인	Lambda	판별함수와의 상관계수
목표지향성	.227***	.689
자존감지지	.260***	.540
교사지지	.228***	.523
성취가치	.221***	.602
Eigen 값	3.911	사례의 정확 분류비율
Lambda 값	.204***	

\*\*\*  $p < .001$

표 6. 저-고학년별 학교적응-부적응집단을 구분해주는 변인

구분	변인	Lambda	판별함수와의 상관계수
저학년	목표지향성	.244***	.749
	자존감지지	.261***	.655
	교사지지	.251***	.647
	Eigen 값	3.778	사례의 정확 분류비율
	Lambda 값	.209***	
고학년	학업효능감	.461***	.721
	친구지지	.319***	.533
	Eigen 값	4.107	사례의 정확 분류비율
	Lambda 값	.196***	

\*\*\*  $p < .001$

## 논 의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성격적, 학업적, 사회적 요인으로 각각 성격특성과 학습동기, 사회적 지지를 선정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 아동들 가운데 학교에 적응을 잘 하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구분해 주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생활적응과 성격특성인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 동기의 하위척도인 목표지향성, 성취가치, 학업효능감과도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척도인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그리고 정서적 지지, 정보 지지, 자존감 지지, 물질적 지지 또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이 이들의 성격특성과 학습동기,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이 있다는 기존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곽경화, 2002; 김옥분, 2001; 이경자, 2006; Baker, 2006; Bhattacharya, 2000; Ladd et al., 1996 등). 또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현영, 2006; 제갈종기, 2007)에서 학교생활적응과 사회적 지지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학교생활적응 총 점수를 기준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을 학교적응집단과 부적응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 간 성격특성, 학습동기,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교적응집단에서 성격특성, 학습동기,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모두가 학교 부적응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긴

하나 학교적응 정도에 따른 집단 간 학습동기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김용래(2000)의 연구와 성격특성에 따른 학교적응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이승화(200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아동은 아니지만 학교적응에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된 시설 아동의 경우, 사회적 지지 정도를 높게 지각한 아동이 학교적응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결과(유전희 등, 2008)와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교생활적응에 각 변인들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학습동기의 하위요인인 목표지향성과 교사지지, 친구지지, 성취가치, 가족지지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도를 약 74% 정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와 가족관련 요인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에 가장 큰 보호요인이라는 이영주(2008)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생활적응에 각 변인들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저학년 집단과 고학년 집단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백정재와 이재연(1997)의 빈곤가정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가 학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본 문신정(2004)의 연구에서도 학년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실시했다. 또한 교수법이나 학교시설 등에 관한 연구(김원봉, 김상수, 김민철, 장성준, 2001; 천경남, 2006 등)에서도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누어 실시하였을 정도로 실제적으로 저학년과 고학년에서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저학년과 고학년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학년과 고학년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저학년과 고학년에서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저학

년의 경우, 학습동기의 하위요인인 목표지향성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가장 많이 설명해 주었고, 그 다음으로는 교사지지와 성실성, 가족지지 순으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해 주는 반면, 고학년은 학습동기의 하위요인인 학업효능감과 목표지향성 순으로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저학년의 경우 학교에 새로 입학하여 적응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학습에 전념하여 수행을 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목표지향성과, 학교적응을 위한 교사 및 가족의 지지, 그리고 학교의 규칙과 주어진 일을 수행하기 위한 성실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고학년은 상대적으로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고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학습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믿음인 학업적 효능감과, 학습에 전념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달시키고 스스로의 능력을 표출하고자 하는 목표지향성이 이들의 학교적응력을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상담 시에는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에서 학습동기에 초점을 둔 상담을 실시하되, 저학년과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 다소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저학년의 경우에는 아동의 가족과 교사가 힘을 모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고학년에는 목표지향성을 높일 수 있는 상담과 더불어, 학습에 대한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격특성이 학습 동기나 사회적 지지에 비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그러한 결과는 성격특성의 하위요인인 친화성, 외향성, 성실성이 초반에 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설문이 실시된 기간은 아이들이 이미 관계를 맺고 서로 친숙해졌다

고 볼 수 있는 10월에서 11월의 기간이었다. 따라서 이미 관계를 형성한 시기에 실시된 설문이기 때문에 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성격특성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관관계가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성격특성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 다른 변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적응집단과 학교 부적응집단을 정확하게 구별해주는 요인을 판별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목표지향성과 자존감지지, 교사지지, 성취가치가 사례의 98.1%를 정확하게 분류해주었다. 또한 저학년과 고학년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저학년의 경우 목표지향성과 자존감지지, 그리고 교사지지가, 고학년의 경우 학업효능감과 친구지지가 두 집단을 정확하게 분류해주는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즉 저학년의 경우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는 목표지향성뿐 아니라, 칭찬과 인정과 같이 이들의 자존감을 지지해 주는 것, 특히 친구나 가족보다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의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고학년의 경우는 학습 수행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학업적 효능감과 친구들로부터의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회귀분석과 판별분석의 결과들로 미뤄보아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학습동기를 향상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방식의 접근도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저학년과 고학년에서 다소 다른 방향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저학년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가족 및 선생님과 좋은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학년 아동들은 또래 친구들과의 지지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 가정 아

동의 경우 학습에 대해 더 목표 지향적으로 인식하고, 학습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지각하며, 선생님과 친구,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격려를 받는 것이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 약간 다르므로, 저학년과 고학년의 아동들에게는 다소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즉, 저학년 아동들에게는 학습에 대한 흥미와 성실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학년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효능감을 향상시키고, 학습에 대한 흥미 또한 갖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또래 친구들과 구성된 지지체계를 마련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처럼 저학년과 고학년에 차별화된 지원과 상담을 해 줌으로써,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여 이들의 학업 중도탈락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형성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표집하기가 쉽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의 경우도 대략 100명 내외의 인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87명이라는 비교적 적은 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인원이 적은 한계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제한이 따를 것이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초등학교 일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까지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지역의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교차 타당화할 필요가 있으며, 조금 더 많은 사례수를 보충하여 통계적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들 중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아 연구대상자의 범위를 초등학교 저학년에까지 확대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저학년 아동의 경우 고학년에 비해 언어 발달 수준이나 학습 성취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아이들이 설문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부모나 교사, 연구자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그들의 관점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할 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설문을 제작 및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일반 아동들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해줄 수 있는 특징적인 결과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게 특징적인 결과인지, 일반아동들에게도 유사하게 나오는 결과인지를 보다 정교하게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중훈 (2000).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경화 (2002). 성격특성과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상관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 김민정 (2006).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유머감각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분 (2001). 수업동기와 성격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 학위논문.
- 김용래 (2000). 학교학습동기척도(A)와 학교적응척도(B)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 간의 관계분석. *교육연구 논총*, (17), 3-37
- 김원봉, 김상수, 김인철, 장성준 (2001). 초등학교 저/고학년 차이를 고려한 학교시설기획에 관한 연구. *학술발표대회논문집-계획계/구조계*, 12(2), 295-298.
- 김종기 (2004). 사회적지지가 편부모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신정 (2004). 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한국교육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식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화일보 (2006). 혼혈아 '말 어눌하다' 또래들 따돌림 심해.
- 배숙진 (199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정재, 이재연 (1997).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생활과학연구지*, 12(1), 71-93.
- 신혜정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인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은미 (2006).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 (2007).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에 작용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559-576.
- 오성배 (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유전희, 하은혜 (2008). 시설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사회적 능력과 학교적응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24), 115-134
- 유효현 (2000).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자 (2006).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업동기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화 (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교육연구*, 20, 85-104.
- 이영주 (2008).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응요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3(1), 79-101.
- 이정윤, 이경아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 이현지 (2008).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집단 따돌림과 학교적응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영 (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아시아 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문화 가정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갈종기 (2007).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적응.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란 (2006). 5요인 성격특성과 대인관계성향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동범 (1998).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인지양식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유림 (2000).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경남 (2006). 초등학교 저, 고학년의 수학 수업 비교 분석. *부산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경 (1993). 저, 고학년 학업 성취 귀인과 성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행정안전부 (2008). 외국인주민 89만명, 전년도 대비 23.3%증가.
- 홍진주 (2003).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ker, J. A. (2006). Contributions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to positive school adjustment during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4*(3), 211-229.
- Bhattacharya, G. (2000). The school adjustment of south asian immigrant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dolescence, 35*(137), 77-86.
- Chin, J. M., & Yu, S. C. (2008) School adjustment among children of immigrant mother in Taiwan.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6*(8), 1141-1150.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Haynes, N. M. (1990). Influence of self-concept on school adjustment among middle-school student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0*(2), 199-207.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orion, R. P., Cowen, E. L., Kraus, R. M., & Milling, L. S. (1977). Family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school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2), 142-148.
- Jung, W. S., & Stinnett, T. A. (2005). Comparing judgement of social, behavioral, emotional and school adjustment functioning for Korean, Korean American and Caucasian American children.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6*(3), 317-329.
- Zerrergren, P. (2003).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ce for previously rejected, average and popular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2), 207-222.
- Zhou, Z., Peverly, S. T., Xin, T., Huang, A. S., & Wang, W. (2003). School adjustment of first-generation Chinese-American adolesc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40*(1), 71-85.

## The Factors in relation to School Adjustment for Childre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Yu-Mi Ko      Jungyoon Lee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of personality traits, academic motivation and social support between well-adjusted and maladjusted group to school life among the childre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above factors on school adjustment and variables which classify between well-adjusted and maladjusted group were also investigated. The subjects were 87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which mother is foreigner. They recruited from elementary schools in Seoul, Incheon and Gyunggi area.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school adjust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personality traits, academic motivation and social support. T-test showed that the well-adjusted group had higher level of personality traits, academic motivation and social support than maladjusted group.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target directedness, conscientiousness, and teacher and family support explained the 71.2% or more of school adjustment variance on the lower grades group. On the other hand, academic efficacy and target directedness explained the 80.5% of school adjustment variance on the higher grades group. Discriminant analysis showed that the target directedness, support for self-esteem, teacher support on the lower grades group and academic efficacy and friend support on the higher grades group classified well-adjusted and maladjusted group with 95% or more level of accuracy.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y, school adjustment, personality traits, academic motivation, social support.*